

한자어 접두사에 관한 연구

이 수 정 *

I. 서론

이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자어 접두사’라는 품사 설정의 타당성을 밝히고 설정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한자어 접두사 목록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한자어 접두사의 목록이 작성되고 나면 그 가운데 최근에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급(急)’의 기능 및 용법에 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한자어는 우리말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에는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부류도 있고,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부류도 있다. 후자 중에서도 이미 사용된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한자어라는 의식이 상당히 희미해져서 한문에 관한 지식이 없는 화자도 쉽게 새로운 말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처럼 한자어는 그 수가 많은 만큼 우리말에서 여러 가지 층위로 기능하고 있다.

근래에 생산성을 가지는 한자어 중에는 접사,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왕자(王子)’, ‘국왕(國王)’ 등에서 어근으로 쓰이던 것이 ‘왕새우’, ‘왕벌’ 등에서는 접사처럼 쓰이게 되면서 ‘왕재수’, ‘왕짜증’ 등과 같은 신조어의 형성에까지 관여해 주로 젊은 층 화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여 근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졸업

래에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급(急)’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한자어 접두사를 살펴보기 전에, 과연 한자어에 ‘접두사’라는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연구자들 간에도 명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만큼 다루기 까다롭고, 얼마간은 애매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작업이다. 국어에서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연구자가 있는가 하면, 한자어 접두사를 적극적으로 설정해서 접두 한자어 전부를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하는 연구자도 있고, 존재를 인정하긴 하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의 접두사만을 인정하는 연구자도 있다.¹⁾ 국어사전에서도 접두사로 다루고 있는 한자어의 목록이 상이해서, 상호 공통 항목의 비중이 전체 항목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²⁾ 우리말 품사 중에서 이렇게 합의되지 못한 영역이 또 있을까 싶다.

언어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더 발전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합의된 목록을 공유하는 것이 요망되는 바,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한자어에서도 접두사를 설정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기준을 토대로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된 것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접두사 가운데 오늘날 높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는 ‘급(急)’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안소진(2004)에 따르면, 첫 번째 입장에 서병국(1975), 정민영(1994), 두 번째 입장에 정원수(1991), 홍경란(1996), 세 번째 입장에 노명희(1998), 김창섭(1999)이 있으며, 안소진(2004)도 마지막 입장에 속한다.

2) 김창섭(1998)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어 대사전》(이희승 1982), 《금성판 국어 대사전》(김민수 외 편 1991),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편 1991-2)의 세 사전에는 총 137개의 항목이 한자어 접두사로 올려 졌는데, 세 사전에서 똑같이 접두사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중 87개 뿐 이라고 한다. 비율로 따지면 약 63.5%가 되는 셈인데, 이것은 사전에서조차 ‘한자어 접두사’의 개념정립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II.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

한자어 접두사는 존재 여부부터가 논란이 됨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본고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자어 접두사의 기준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자어 접두사를 인정하지 않는 몇몇 연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한자어 접두사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대한 근거를 대신하고자 한다.³⁾ 국어에서의 한자어 접두사 설정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론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접두사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한자어들도 사실상 기존의 한자어 어근이 하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⁴⁾. 하지만 여기에는 반박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접두사로 인정할만한 한자어의 대부분은 기존의 한자어에서와는 그 쓰임이 달라진 예를 상당부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머리’, ‘생쇼(show)’에서의 ‘생(生)’은 ‘생일(生日)’, ‘환생(幻生)’에서와는 그 쓰임이 다르다.

둘째는 접두사를 설정하게 되면 그 후보가 너무 많아서 새로이 설정하는 의의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면 생각보다 그 후보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본고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노명희(1998), 김창섭(1999), 안소진(2004) 등의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한자어 접두사 목록은 모두 1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⁵⁾

3)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연구로는 서병국(1975), 정민영(1994) 등이 있다.

4) 서병국(1975)에서는 한자어 접두사를 가진 예어로 ‘가식(假飾)’, ‘명산(名山)’, ‘강점(強點)’ 등을 들고 있으나, 이것은 필자가 한자어 접두사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접두 어근을 모두 한자어 접두사로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5) 노명희(1998)의 한자어 접두사 목록은 총 10개(생(生)-, 왕(王)-, 양

셋째는, 한문 혹은 중국어 문법에서도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말에서 접두사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자어 접두사는 언중이 한자어라는 의식조차 잊을 정도로 상당히 고유어화(化)하여 우리말에서 새로이 지위를 부여받은 형태소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가 한문 혹은 중국어로부터의 차용어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자어는 이미 우리말의 체계 안으로 편입되어 우리말의 대부분을 이루면서, 한문 문법뿐만이 아닌 국어 문법의 지배를 받게 된 부분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문 문법에서 접두사가 아니라고 우리말에서도 접두사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은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는 한자어 접두사로 처리될 수 있는 한자어 대부분이 어기의 기능과 접두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내기 때문에 애초에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기준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전마다 한자어 접두사 목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자들과 대부분의 사전에서 접두사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접두 한자어⁶⁾들을 살펴보면 다른 접두어근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접두사로 인정되어야 할 한자어와 그렇지 못한 한자어 사이에 일정한 구분이 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그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洋)-, 친(親)-, 외(外)-, 시(嫗)-, 초(超)-, 범(汎)-, 최(最)-, 준(準)-이고, 김창섭(1999)의 목록은 총 14개(건(乾)-, 공(空)-, 당(唐)-, 생(生)-, 숙(熟)-, 시(嫗)-, 양(洋)-, 양(養)-, 왕(王)-, 왜(倭)-, 외(外)-, 잡(雜)-, 친(親)-, 호(胡))이며, 안소진(2004)의 목록은 총 11개(건(乾)-, 공(空)-, 생(生)-, 시(嫗)-, 양(洋)-, 양(養)-, 왕(王)-, 외(外)-, 의붓(義父)-, 청(靑)-, 친(親)-)이다.

6) 앞선 세 논문과 여러 국어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접두사의 지위를 부여받은 한자어로는 ‘생(生)’, ‘시(嫗)’, ‘양(洋)’, ‘왕(王)’, ‘외(外)’, ‘친(親)’이 있다.

Ⅲ.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1.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

지금까지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여부에 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자어는 한문으로서의 성격과 고유어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어떤 체계로 설명해야하는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어느 하나의 체계 안에서 설명하는 것에도 무리가 따르지만, 별도의 체계를 세우기란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자어가 일단 우리말에서 접두사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상당부분 한문의 성격을 잃고 우리말로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유어 접두사의 설정기준과 견주어보며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기로 한다. 이익섭 외(1999)에서 고유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으로 언급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ㄱ. 단어의 품사는 바꾸지 못하고 그 의미만 바꾸는 구실을 한다.
- ㄴ. 관형사, 부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들과는 달리 자립성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
- ㄷ. 관형사, 부사와 달리 뒤에 놓이는 단어에 큰 제약을 받는다.
- ㄹ. 뒤에 오는 단어와의 사이에 다른 단어를 개입시킬 수 없다.

고유어에서 접두사는 후행 어기의 품사를 바꾸는 일 없이 그 의미에 어떠한 뜻을 추가하는 역할만을 한다. 하지만 한자어 접두사 후보군, 즉 접두 한자어⁷⁾ 중에는 후행 어기의 품사를 바꾸는 예가 몇 가지 있다. ‘몰(沒)-, 무(無)-’ 등 부정을 나타내는 몇몇 접두 한자어는

7) 접사성을 지니며 단어의 앞부분에 놓여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기회를 가지는 후보군들을 통틀어 ‘접두 한자어’라 이르기로 한다.

‘물상식’, ‘무책임’ 처럼 어기 앞에 붙어 전체 구성을 상태성 어근으로 만든다.(김규철 1980:33, 조현숙 1989)⁸⁾ 또한 ‘對북한’, ‘反정부’, ‘親정부’, ‘汎아시아’, ‘在한국’, ‘駐한국’, ‘脫한국’, ‘要주의’의 ‘대(對)-, 반(反)-, 친(親)-, 범(汎)-, 재(在)-, 주(駐)-, 탈(脫)-, 요(要)-’ 등은 어기 앞에 붙어 전체 구성을 관형사성 어근으로 만든다. 이 모든 접두 한자어들은 뒤에 오는 성분이 아닌 스스로를 표제로 만들기 때문에 접두사의 기본요소에도 합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좌핵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국어문법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국어문법에 포괄할 수 있는가 부터가 문제시되고 있다.(김창섭 1998, 1999)

또한, ㄷ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고유어 접두사는 관형사나 부사에 비해 뒤에 놓이는 단어에 큰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한자어는 생산성을 큰 특징으로 갖기 때문에 고유어 접두사에 비해 뒤에 놓이는 단어에 제약을 덜 받고, 신조어의 형성에 크게 관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자어 접두사를 고유어 접두사의 설정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위의 기준만을 충족시키는 접두 한자어를 모두 한자어 접두사로 본다면 그 목록이 매우 방대해져서 경제성을 기하기 힘들고, 접두사 설정의 의의마저 다소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기준을 크게 ①비자립성, ②후속 어기의 자립성, ③수식 범위의 제한성, ④생산성, ⑤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 ⑥의미 유연성 및 다의성, 이 여섯 가지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비(非)자립성

먼저, 접두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사전에서는 ‘접사’ 및 ‘접두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8) 김창섭(1998)에서 재인용.

(2) ㄱ. 접사(接辭) [-싸]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 접두사(接頭辭)와 접미사(接尾辭)가 있다. ㄴ가 지01 「3」· 씨가지· 접어01(接語) 「2」· 접착어. 《표준국어대사전》

ㄴ. 접두-사(接頭辭)[-뚜-] 「명사」 『언어』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맨손’의 ‘맨-’, ‘들볶다’의 ‘들-’, ‘시퍼렇다’의 ‘시-’ 따위가 있다. ㄴ머리가지· 앞가지02· 접두어. 《표준국어대사전》

(2)에서 보듯이 접두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에서 의미의 중심 부인 어기(語基) 앞에 붙어 주변적 의미를 더하는 파생어의 구성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 접두사 역시 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한자어만을 구성요소로 인정한다.

(3) ㄱ. 왜-간장, 왜-낫, 왜-모시, 왜-떡, 왜-틀

ㄴ. 이순신장군은 끝까지 왜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3)의 ㄱ에서 ‘왜(倭)’는 단어의 앞에 붙어서 ‘일본식의, 일본산의’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 한자어로 쓰였다. 하지만 ㄴ에서는 자립명사로 쓰이고 있고, 이것은 국어사전에도 명사로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자립성을 가지고 쓰일 수 있는 단어는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것은 단어가 구 형성의 직접적인 재료가 되는 한편 단어 형성에도 직접적인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합성어⁹⁾ 속의 앞 성분이 독립적 단어로 쓰일 때와 의미가 같다면 그것은 접두사일 수 없다.(김창섭 1998: 8)¹⁰⁾

한편, 한자어 접두사의 비자립성을 논하기 전에 한자어의 구조를

9) 본고에서는 ‘합성어’를 파생어와 복합어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10) 김창섭(1998)에서는 ‘물-병장, 물-과장, 물-대통령’의 ‘물’을 예로 들고 있다. ‘물’은 파생어에서 ‘무력한 사람이나 기관의 비유’라는 의미를 갖지만, ‘우리 과장은 아주 물이야’에서처럼 단독으로 쓰일 때도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접두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자는 단어문자이기 때문에 한문 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하나가 단어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말 체계에 편입될 때는 기본적으로 한자 1자(字)는 형태소의 자격을 가질 뿐 단어가 되지는 못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산(山)’, ‘책(冊)’ 등 1음절 한자가 자립성을 가지는 예는 수만 개의 한자 중에서 그 수가 100개 남짓 될 뿐이고, 형태론 적으로 예외에 속한다는 연구는 거의 정설이 되었다.(송기중 1992)¹¹⁾ 그래서 한자어는 우리말에서 기본적으로 어근의 자격을 가지고 단어형성에 참여하며, 2자 이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단어가 될 자격을 가진다. ‘해양(海洋)’, ‘양말(洋襪)’의 ‘海’, ‘洋’, ‘襪’은 각각 ‘바다’, ‘바다 또는 서양의 것’, ‘버선’이라는 개별적인 의미를 갖지만 우리말에서 ‘해’, ‘양’, ‘말’이 자립성을 가지고 쓰일 수는 없는 것이다. 2자어의 앞이나 뒤에 다시 1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는 3자어(3字語)라고 부를 수 있다. ‘양변기(洋便器)’, ‘양약(洋藥)’이 그 예인데, ‘洋藥’에서 보듯이 음절수가 2자어류와 3자어류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2음절로 되어있더라도 ‘어근+단어’의 구조라면 3자어류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김창섭 2001)

이를 토대로 한자어의 구조에서 접두사는 3자어의 1자 구성성분, 즉 단어의 기본구성인 2자어의 앞에 붙는 비자립적 어근을 말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¹²⁾

11) 이익섭 외(1999), 김창섭(2001: 178)에서 재인용.

12) 몇몇 논문에서 간혹 ‘1음절성’을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지만(김정은 1993, 기주연 1994, 권순구 1995 등. 최윤곤 1999에서 재인용.), 이것은 이러한 한자어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따로 기준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몇몇 사전에서 ‘차아(次亞)’, ‘조성(焦性)’과 같은 2음절 한자어도 한자어 접두사로 다루고 있으나(안소진(2004)의 목록을 보면 ‘차아(次亞)’는 《새우리말 큰사전》, 《금성관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조성(焦性)’은 《우리말 큰사전》에서 접두사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次+亞’, ‘焦+性’로 세분화 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한자어 접두사의 1음절성은 자못 당연해 보인다.

(2) 후속 어기의 자립성

한자어 속에서 접두 한자어를 분석해내려면 접두 한자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자립성을 가지고 문장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한자어의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접두 한자어가 쓰인 단어는 3자어류로서 접두 한자어 1자(字)를 제외한 나머지는 2자어류이기 때문이다. 2자어류는 국어에서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비로소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최소 형태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 (4) ㄱ. 귀빈(貴賓), 귀족(貴族), 고귀(高貴), 품귀(品貴)
- ㄴ. 귀족적(貴族的), 귀빈석(貴賓席)
- ㄷ. 귀금속(貴金屬), 귀부인(貴婦人), 귀공자(貴公子)
- ㄹ. 귀 회사, 귀 학교

(4)는 모두 ‘귀(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혹은 구인데, ‘귀(貴)’가 단어 속에서 가지는 문법적 지위는 모두 다르다. ㄱ에서 ‘귀(貴)’는 2자어의 구성요소로서 어근의 자격을 가진다. 이 단어들은 더 분석하면 자립성을 잃고 마는 최소의 자립형식으로서, 이것들을 더 분석하면 이것들은 이내 단어의 자격을 잃고 만다. ㄴ에서 ‘귀(貴)’는 3자어의 구성요소로 쓰였지만 이 단어는 ‘귀족적’, ‘귀빈석’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3자어 안에서 1자(字) ‘적(的)’, ‘석(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2자어의 구성요소로 쓰였다. ‘귀족(貴族)’, ‘귀빈(貴賓)’이 각각 자립성을 가지고 쓰일 수 있는 최소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귀(貴)’의 자격역시 ㄱ과 마찬가지로 어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귀(貴)’는 ㄷ에서야 비로소 접두사적 요소를 가지는 성분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각각의 단어가 ‘귀-금속’, ‘귀-부인’, ‘귀-공자’로 분석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귀(貴)’를 제외한 단어인 ‘금속(金屬)’, ‘부인(婦人)’, ‘공자(公子)’가 각각 명사

의 자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접두 한자어는 3자어의 '1+2' 구조에서 '1'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속 어기는 '2'에 해당하는 자립적 단어가 와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ㄹ은 '귀(貴)'의 용법이 확대되어 '귀(貴)'가 관형사처럼 쓰인 예이다. 이것은 단어구성이 아닌 구(句) 구성이다. '귀'와 후속어기 사이에 휴지가 성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후속 어기의 자립성이 확보되더라도 전체 구성이 단어를 넘거나 그 사이에 휴지를 성립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접두 한자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장인 '수식 범위 한정'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3) 수식 범위의 제한성

접두사는 파생어의 구성요소인 파생접사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두사를 포함하는 낱말은 단어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접두사는 단어 앞에 놓여 후속 어기에 어떠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관형사 혹은 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접두사를 관형사 혹은 부사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접두사와 후속 어기 사이에 휴지가 성립하는가, 다른 단어를 개입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 (5) ㄱ. 급성장, 급속도, 급정지, 급진전, 급환자
- ㄴ. 급 차선 변경
- ㄷ. 급 예뻐지신 상점아주머니랑 함께.(인터넷 본문 인용)¹³⁾

ㄱ에서 '급(急)-'은 '갑작스러운, 매우 급한, 매우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 한자어로 쓰였다. 이들이 단어의 구성을 넘지 않는데 반해

13) 네이버 카페, 2009년 11월 16일

(http://cafe.naver.com/sangcomn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85&).

ㄴ의 예는 문제적이다. ‘급 차선 변경’을 ‘급변경’이라는 단어 사이에 ‘차선’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개입된 구조로 본다면 이것은 구(句) 구성이 되어 단어의 범위를 넘게 된다. 이때의 ‘급(急)’은 후속 어기와 사이에 다른 단어를 개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접두사가 아닌 관형사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차선변경’을 복합명사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럴 경우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급차선변경’으로 표기해야 하며, 이것은 단어의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급(急)’은 여전히 접두사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급(急)’은 근래에 높은 생산성을 보이면서 때에 따라 단어 구성을 넘어 관형사적 용법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ㄷ은 비문이긴 하지만 젊은 층의 화자들 사이에서는 부사적 용법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결론적으로, ㄷ은 물론 ㄴ에서도 ‘급’과 후속 어기 사이에 다른 단어를 개입시키거나 휴지를 성립시킬 수 있다면 ㄱ과 달리 접두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4) 생산성

지금까지 살펴본 ‘비자립성’, ‘후속 어기의 자립성’, ‘수식 범위 한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한자어 및 고유어를 어우르는 국어 전반에서의 접두사 설정 기본 요건이었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요소들은 한 자어에만 특수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한자어가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화자들이 어떤 요소를 언어 생활에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요소의 성격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에게 비교적 명확히 인지되었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한자어는 본래 한문에서 차용된 차용어 혹은 외래어지만, 이들 중 생산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는 국어 문법 체계에 상당히 깊숙이 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문에 관한 지식이 없는 화자들조차 쉽게 새 단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면, 이것은 언

중에게 한자어라는 인식조차 희미해져서 한자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유어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같은 한자어라 할지라도 쓰임에 따라 언중이 한자어에 대해 느끼는 친숙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공백(空白)’, ‘항공기(航空機)’, ‘허공(虛空)’에서처럼 어근으로 쓰일 때는 ‘공(空)’을 명백한 한자어로 인식하고 이미 만들어진 단어만을 사용하는데 그치는 반면, ‘공병(空瓶)’, ‘공수표(空手票)’에서처럼 접두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이것이 한자어라는 의식마저 희미해져서 ‘공돈’, ‘공술’과 같은 새 단어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한자어의 구조상 2자어류에 속하고 후자는 3자어류에 속하는데, 2자어류 가운데는 국어의 요소가 되었지만 단어 내부의 성격을 살펴보면 여전히 한문 문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¹⁴⁾. 때문에 새로운 2자어를 만들어 내려면 한문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된다. 반면 여기에 1자를 결합해 3자어를 만드는 작업은 한문에 관한 많은 지식 없이 우리말의 문법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다. 이러한 입장은 고영근(1993)¹⁵⁾에서 설정한 단어구성소와 형성소라는 개념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공백(空白)’, ‘항공기(航空機)’, ‘창공(蒼空)’의 각 글자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고립적이어서 단어구성소일 뿐 단어 형성소는 되지 못하지만, ‘공병(空瓶)’, ‘공수표(空手票)’에 나타나는 ‘공(空)’은 자립성이 있는 단어에 붙어 ‘빈, 효과가 없는’을 뜻하며 접두사로서 단어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어 형성소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글자라 할지라도 단어를 형성할 때 어떻게 가능하느냐에 따라 달리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접두 한자어는 다른 한자어 요소들에 비해 화자들이 한문에 관한 지식이 없

14) ‘애국(愛國)’, ‘입학(入學)’ 등의 2자어는 각각 술목구성, 술보구성으로 고유어 문법에서 보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이다. 고유어 문법체계를 따르자면 ‘국애(國愛)’, ‘학입(學入)’이 되어야 맞다. 이것은 2자어 중에 한문 문법의 지배를 받는 단어들이 많다는 사실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창섭 2001)

15) 노명희(1998)에서 재인용.

어도 쉽게 새 말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바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고유어 문법의 체계에 상당부분 동화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을수록 접두사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5)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

이미 언급한 대로 한자어는 우리말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그 래서인지 한자어는 한자어끼리만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자어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중에는 고유어와 결합하는 예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것은 한자어 접두사가 상당히 고유어화(化)하여 우리 문법체계 안에서 새 지위를 얻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6) ㄱ. 왕가(王家), 왕손(王孫), 국왕(國王), 여왕(女王)
- ㄴ. 왕초보(王初步), 왕고집(王固執), 왕고모(王姑母)
- ㄷ. 왕개미, 왕소금, 왕가뭇, 왕할아버지
- ㄹ. 왕스트레스, 왕팬

(6)은 ‘왕(王)’이라는 한자어가 단어 안에서 다양하게 쓰인 예들이다. 먼저 ㄱ의 단어들을 보면, 이것들은 모두 2자어로, 여기서의 ‘왕(王)’은 어근의 자격을 갖는다. ㄴ부터 비로소 3자어의 구성요소로 쓰이면서 접두사의 자격으로 단어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ㄴ에서 ‘왕(王)’은 모두 한자어와만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ㄷ은 같은 접두사적 용법으로 쓰였지만 ㄴ과 달리 고유어와 결합하는 예이고, ㄹ은 고유어와의 결합을 넘어서 외래어와도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면서 국어 문법체계에 깊숙이 흡수된 접두 한자어는 언중에게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고유어와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고유어와의 결합이 늘면 그것은 다시 높은 생산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작용하여 한자어가 접두사의 지위로 승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즉, 생산성이 높을수록, 고유어와의 결합이 자유로울수록 한자어가 접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6) 의미 유연성(有緣性) 및 다의성

본 장에서는 의미의 유연성과 다의성을 용례와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주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 유연성이란 접두 한자어가 한자의 원래 뜻과 의미적으로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의미 유연성이 약화될수록, 다시 말해 한자의 원래 뜻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을수록 다의성의 정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자의 원래 뜻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부터가 문제시 된다. 옥편에서 한자를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한자는 ‘훈(訓)’이라고 불리는 뜻 말고도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옥편에서 ‘생(生)’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生

㉑ 생 庚 (平) 《廣韻》 所庚切 [甥] shēng

㉒ 생 映 (去) 《廣韻》 所敬切 [甥]

㉓ ① 낳다. 낳아서 기르다. ② 기르다. 양육하다. ③ 생겨나다. 발생하다. ④ 태어나다. 출생하다. ⑤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나다. ⑥ 나서 자라다. 성장하다. ⑦ 살아 있다. 생존하다. ⑧ 살아 있는 사람. 또는 살아 있는 것. ⑨ 살리다. 살려 내다. ⑩ 목숨. 생명. ⑪ 살다. 생활하다. ⑫ 삶. 생활. ⑬ 일생. 평생. ⑭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⑮ 생기다. 생김새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 ⑯ 생일. ⑰ 생물. ⑱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⑲ 산출하다. ⑳ 나타나다. 드러나다. ㉑ 생업. 생계. ㉒ 가산. 재산. ㉓ 산 채로 잡다. 생포하다. ㉔ 포로. ㉕ 장작·숯 따위를 때다. ㉖ 생각하다. 사색하다. ㉗ 물이 불어나다. ㉘ 해나 달이 떠오르다. ㉙ 곡식이 여물지

아니하다. 과일이 익지 아니하다. ㉑익히지 아니하다. 날것. ㉒가공하
 거나 단련하지 아니하다. ㉓싱싱하다. ㉔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하
 다. ㉕경작하지 않은 토지. ㉖서툴다. 낫설다. ㉗길들지 아니하다.
 ㉘억지를 쓰다. 강행하다. ㉙강건하다. 긴장하다. ㉚양지쪽. 또는 남
 향. ㉛나이가 많고 학덕이 높은 사람. 선생(先生)의 준말. ㉜학문하는
 사람의 통칭. ㉝생도(生徒). 생원(生員). ㉞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㉟제후(諸侯)의 아들이 아버지의 위(位)를 계승하다. ㊱부르다. 일컫다.
 ㊲만들다. 조성하다. 지어내다. ㊳더하다. 보태다. ㊴목조 건축에서,
 두공(料枋)의 한 등분. ㊵전통극의 남자 배역. ㊶기녀. 기생. ㊷㉑공
 교롭게. 마침. ㉒매우. 몹시. ㉓억지로. 무리하게. ㉔어조사. 형용사나
 대명사 뒤에 쓰인다. ㉕본성. 뒤에 性으로 썼다. ㉖가축. 姓과 통용.
 ㉗생질. 甥과 통용. ㉘질병. 병해(病害). ㉙성씨. 姓과 통용. ㉚旌과
 통용. ㉛성(姓). 《한한대사전》

이 많은 의미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원래 뜻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한자는 본래 고정된 하나의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그 의미는 물론 품사까지
 두루 통용되어 쓰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원래 뜻’ 이라
 는 용어보다는 ‘훈(訓)’ 을 지칭하는 ‘기본 뜻’ 이라는 용어가 기준으로
 서 더 적합해 보인다. 본래 여러 뜻으로 두루 쓰이는 한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말로 편입된 후 ‘접두사’ 라는 한 품사 안에
 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점은 생산성과 더불어 한자의 고유어
 화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 접두사의 설
 정 기준으로 의미 유연성을 다루고 있는 많은 논문에서 원래의 뜻을
 훈(訓)으로 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까닭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의미의 다의성
 을 가늠하는 기준으로서의 ‘기본 뜻’ 을 ‘훈’ 으로 삼고 논의를 전개하고
 자 한다.

기본 뜻과의 유연성이 약화된 채 다의성을 확보한 한자어 접두사
 가운데는, 그 용법이 기본 뜻에서는 벗어났지만 원래의 한문 혹은 중
 국어에서의 용법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들로만 구성된 것이 있는 반

면, 고유어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들도 있다. 전자의 예로 ‘건(乾)’을 들 수 있을 것인데, 한한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건(乾)’을 찾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8) 乾

㉠ 건 仙 平 《廣韻》渠焉切 qián

㉡ 건(간) 寒 平 《廣韻》古寒切 gān

㉢ ①솟아나다. ②8괘(卦)의 하나. ③하늘. 건괘(乾卦)는 상(象)이 하늘을 나타낸다. ④임금. 또는 임금의 자리. ⑤아버지. ⑥남성. 수컷. ⑦말[馬]. ⑧북서쪽. ⑨세다. 굳세다. 강하다. ⑩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의 동안. ㉣ ①마르다. 말리다. ②다 없어지다. 고갈되다. ③소리가 깔깔하고 메마르다. ④의(義)로 맺은 친속 관계를 나타내는 말. ⑤이름뿐인. 유명무실한. ⑥난처하게 하다. 무안을 주다. ⑦푸대접하다. 냉대하다. ⑧말린 식품. 건제품(乾製品). ⑨획이 거칠고 광택이 없는 글씨. ⑩뽕 ①건성으로. 거것으로. 겉으로만. ②공연히. 쓸데없이. 헛되이. ③성(姓). 《한한대사전》

(9) 건-11(乾) 「접사」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건가자미/건과자/건바닥/건어물/건포도.

「2」 ((행동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겉으로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건울음/건주정.

「3」 ((몇몇 명사 앞에 붙어))‘근거나 이유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건강짜. 《표준국어대사전》

여기서 우리는 접두사 ‘건(乾)’의 용법이 ‘하늘’이라는 훈, 혹은 ‘마르다, 말리다’라는 기본 뜻에서는 멀어졌지만 그 용법이 궁극적으로 한문 혹은 중국어의 쓰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7)에서 보였던 ‘생(生)’의 경우 한문 혹은 중국어에서의 원래 쓰임에서 벗어나 우리말 안에 편입된 후 새로 획득한 용법도 가지고 있다.

(10) 생-06(生) 「접사」

「1」 ((음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익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생김치/생나물/생쌀.

「2」((몇몇 명사 앞에 붙어))‘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㉑ 생가지/생나무/생장작.

「3」((몇몇 명사 앞에 붙어))‘가공하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㉑ 생가죽/생맥주/생도시.

「4」((몇몇 명사 앞에 붙어))‘직접적인 혈연관계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㉑ 생부모/생어머니/생아버지.

「5」((일부 명사 앞에 붙어))‘억지스러운’ 또는 ‘공연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㉑ 생고생/생과부/생이별/생죽음/생떼/생트집/생초상.

「6」((몇몇 명사 앞에 붙어))‘지독한’ 또는 ‘혹독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㉑ 생급살/생지옥.

「7」((고기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얼리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㉑ 생고기/생갈치.

(10)의 용례만 보아도 ‘생(生)’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용례도 몇몇 존재한다. ‘생머리’의 경우 「3」의 ‘가공하지 아니한’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스트레이트 파마를 한 머리로 ‘생머리’라고 부르는 만큼, 여기에서 의미가 얼마간 확장되어 ‘가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노명희 1998) 그렇다면 ‘생음악’이나 ‘생방송’은 어떠한가. 각각의 사전적 정의가 각각 ‘녹음한 것을 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하여 들려주는 음악’, ‘미리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을 재생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송’임을 본다면 ‘녹음하지 아니한’, 즉 ‘live’ 정도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생음악’이나 ‘생방송’을 위의 틀 안에 굳이 넣어서 보려 한다면 「3」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들은 ‘가공하지 아니한 음악’, ‘가공하지 아니한 방송’은 아니다. ‘생라이브’나 ‘생목’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생목’이 사전에서 정의하는 ‘트이지 아니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가성을 섞지 아니한, 진성으로만 된 목소리’로도 쓰임을 감안할 때, 이때의 ‘생’은 위의 설명과는 상당히 떨어진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의 경우, ‘한자어 접두사’에 대해

학자마다 사전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거의 모든 학자와 사전이 한자어접두사로 인정하는 단어이다. 이른바 한자어 접두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생’의 경우, 이처럼 기본 뜻과의 유연성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다의성의 정도도 굉장히 높은 것이다.

‘생’ 처럼 의미 유연성이 약화되고 다의성을 확보한 정도가 큰, 즉 한문 혹은 중국어 문법에서 갖지 못한 새로운 용법을 획득한 것들은 그렇지 못한 부류에 비해 고유어화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접두사로 쓰일 때 경음화가 일어나는 음운적 변화를 겪는다.

‘공돈[공똥], 공술[공술]’, ‘생머리[생머리], 생쇼[생쑈]’ 등이 그 예로, 접두사로서의 지위가 비교적 분명히 인정된다. 이것은 고유어가 문법화를 겪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밖에[빠께]’를 예로 들 수 있다. 본래 각각 ‘비다’, ‘나다, 살다’를 뜻하는 한자어 어근이던 ‘공(空)’, ‘생(生)’이 접두사로 문법화 되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자가 기본 뜻과의 유연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다의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 접두 한자어가 한문 문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어 문법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의미 유연성을 상실하지 않은 한자어가 접두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미 유연성이 약화되고 다의성을 얻게 된 접두 한자어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의 의미 안에서 다의성을 얻게 된 ‘건(乾)’이 ‘건포도’, ‘건어물’과 같은 용례를 가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접두 한자어들 중에서 의미 유연성을 상실한 채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게 된 한자어는 모두 한자어 접두사의 자격을 부여받지만, 의미 유연성을 상실하지 않은 한자어 중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으면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 방침이다.

이상으로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 여섯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다. 앞서 말했듯 한자어는 국어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정

하는 것부터가 문제시 된다. 위에서 제시한 기준은 고유어 접두사의 설정기준에 몇 가지 기준을 덧붙인 것이다. ‘비자립성’, ‘후속어기의 자립성’, ‘수식 범위의 제한성’은 고유어 접두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접두사라면 응당 지녀야 할 기본 속성에 해당한다. ‘생산성’은 고유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고유어에서는 접두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과 ‘의미 유연성 및 다의성’은 한자어 접두사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것으로 기준들 간에도 층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 2), 3)은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에서 기본이 되는 필수 조건, 4)는 공통조건이지만 한자어 접두사 판별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건, 5), 6)은 한자어에만 부과된 특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 2), 3)의 기본조건을 충족한 접두 한자어 가운데 4), 5), 6) 중 둘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충족하는 조건이 많을수록 접두사로서의 지위가 공고한 것은 물론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생(生)’은 거의 모든 연구자와 사전에서 접두사로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한자어 접두사 중에서도 그 지위를 비교적 확실히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접두사로 인정받은 단어들 사이에도 고유어화의 정도에 따른 층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2. 한자어 접두사 목록

1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절의 말미에 그 기준을 사이에도 일정한 층위가 존재하여 한자어 접두사 판별 시 조건을 적용하는 데는 일종의 우선순위가 있음도 덧붙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한자어 접두사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⁶⁾

16) 이것은 김창섭(1999)과 안소진(2004)에서 부록으로 제시한 접두 한자어 목록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 (8) 건(乾)-, 공(空)-, 급(急)-, 명(名)-, 본(本)-, 생(生)-, 시(嫗)-, 양(洋)-, 왕(王)-, 외(外)-, 잡(雜)-, 청(靑)-, 초(超)-, 친(親)-.

제시된 목록의 용례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 건(乾)- : 건포도, 건새우, 건강짜, 건깡깡이, 건망고
 공(空)- : 공수표, 공염불, 공돈, 공술, 공치다, 공테이프
 급(急)- : 급가속, 급성장, 급환자, 급경사, 급만남, 급브레이크
 명(名)- : 명장면, 명가수, 명MC, 명디자이너, 명프로듀서
 본(本)- : 본회의, 본경기, 본방송, 본고장, 본계임
 생(生)- : 생김치, 생장작, 생맥주, 생머리, 생부모, 생고생, 생지옥, 생고기, 생쇼
 시(嫗)- : 시동생, 시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양(洋)- : 양변기, 양상추, 양송이, 양담배, 양약, 양놈
 왕(王)- : 왕개미, 왕소금, 왕고집, 왕할머니, 왕재수, 왕짜증
 외(外)- : 외분비, 외출혈, 외삼촌, 외손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잡(雜)- : 잡생각, 잡상인, 잡소리, 잡소문, 잡놈, 잡년, 잡것
 청(靑)- : 청바지, 청치마, 청남방, 청재킷, 청점퍼
 초(超)- : 초강대국, 초만원, 초분절음, 초절정, 초미녀, 초미니스커트, 초슬림
 친(親)- : 친부모, 친어머니, 친아버지, 친누나, 친동생, 친오빠

위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고에서 한자어 접두사로 보는 14개의 단어들은 모두 한자어이외의 성분들, 다시 말해 고유어나 외래어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중에는 근래에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새 말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시(嫗)-’, ‘외(外)-’, ‘친(親)-’은 의미상 새 말을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고, ‘양(洋)-’의 경우 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서구문물의 유입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이 접두사의 설정이 무의미해진 경우에 속한다.¹⁷⁾ 이들은 비록 생산성은 낮지만

17) ‘양(洋)-’이 붙은 명칭이 무표적 성격을 가지고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약’, ‘양의사’의 경우 ‘현약’, ‘한의사’와 비교할 때만 접두

한자 본뜻과의 의미적 유연성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하여 한자어접두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급(急)-’, ‘생(生)-’, ‘왕(王)-’, ‘초(超)-’의 경우, 근래에 매우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급만남, 생쇼, 왕짜증, 초미녀’ 등의 신조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급눅었다, 왕비싸다, 초예쁘다’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사적용법을 보이기도 한다.¹⁸⁾

‘청(靑)-’의 경우 ‘청기와’에서처럼 원래의 ‘푸르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위의 예들은 색깔보다는 재료로서의 데님(denim)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홍(紅)-’, ‘백(白)-’ 등 다른 색깔관계 접두 한자어들과 달리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받은 것이다.(안소진 2004) 나머지 ‘건(建)-’, ‘공(空)-’, ‘명(名)-’, ‘본(本)-’, ‘잡(雜)-’도 의미 유연성이 어느 정도 약화되어 나름의 의미를 가지며 새 말을 만드는데 쓰이나, 그 구성이 기존의 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를 유지한다.

한자어 접두사들 사이에도 이처럼 층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받지 못한 다른 접두 한자어들보다 상당히 고유어화 되었다는 점에서 ‘한자어 접두사’라는 공통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IV. 한자어 접두사 ‘급(急)-’의 위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급(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0) 급02(急)

‘급하다’의 어근. 《표준국어대사전》

(11) 급-05(急)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 ‘갑작스러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급가속/급강하/급상승/급선회/급회전.

사가 붙은 명칭을 쓰고, 접두사가 붙지 않은 ‘약’, ‘의사’의 경우 ‘양약’과 ‘양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안소진2004)

18) ‘생(生)-’의 경우 ‘생으로/쌍으로’의 구성으로 부사적 용법을 나타낸다.

「2」 ‘매우 급한’ 또는 ‘매우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㉑ 급경사/급행군/급환자. 《표준국어대사전》

‘급조(急造)’, ‘급성(急性)’과 같이 모든 2자어에서의 ‘급-’은 (10)에 해당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3자어에서 ‘급-’의 쓰임이 어근인가 접사인가 하는 것을 판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¹⁹⁾ 하지만 본고에서는 3자어의 앞 성분으로 쓰인 ‘급-’이 앞서 제시한 한자어 접두사의 여섯 가지 조건에 합치한다고 보는 바, 이를 접사로 보고 그 기능 및 용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급(急)-’이 접두사로 쓰인 단어는 모두 36개이다.²⁰⁾

- (12) ㄱ. ① 급가속, 급강하, 급반동, 급부상, 급상승, 급선회, 급성장, 급신장, 급전환, 급정거, 급정지, 급정차, 급제동, 급진전, 급출발, 급팽창, 급회전.
 ② 급브레이크.
 ③ 급경풍(한의학), 급실속(항공), 급유아(한의학), 급체포(역사), 급후비(한의학).
 ㄴ. ① 급각도, 급경사, 급구배, 급물살, 급배기, 급선무, 급선봉, 급속도, 급행군.
 ② 급커브, 급템포, 급피치.
 ③ 급기류(물리)²¹⁾.

(12)는 그 단어들을 쓰임과 결합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ㄱ은 (11)의 쓰임 중 「1」에 해당하며 각 단어에 ‘갑작스러운’의 뜻을 더

19) 《표준국어대사전》 및 《새우리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 《연세 한국어사전》등의 국어사전에서는 ‘급(急)-’을 접사로 인정하고 있지만, 노명희(1998), 김창섭(1999), 안소진(2004) 등 한자어 접두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에서조차 이것을 접두 어근으로 처리하고 있다.

20) 북한어로만 쓰이는 것은 제외하였으며, ‘급반동’, ‘급반등하다’와 같이 ‘급-’으로 시작하는 3자어에 ‘하다’가 결합한 동사도 제외하였다.

21) =제트(가는 구멍에서 가스, 물 따위가 연속적으로 뿜어 나오는 일. 또는 그 분출물).

하는 접두사로 쓰였고, ㄴ은 「2」에 해당하며 각 단어에 ‘매우 급한’ 또는 ‘매우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였다. 각각의 ①항목은 일상적으로 쓰이면서 한자어로만 구성된 단어들이고, ②항목은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외래어와 결합하는 구조를 가진 단어들이며, ③항목은 한자어로 구성되었으나 전문용어라서 일반 화자들에게는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다. 용례를 보이기 위해 전부를 열거했지만,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①과 ②를 주로 보기로 한다.

ㄱ에 열거된 단어들의 후속성분은 모두 동작성이 있는 명사들이다. 이 명사들에 ‘하다’를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동사형이 된다. 명사형과 결합한 ‘급’은 관형사적 용법으로 ‘갑작스러운’의 뜻을 더하지만, 동사형과 결합한 ‘급’은 ‘갑자기’의 뜻을 더하며 동사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으로도 쓰인다. ‘급가속하다’는 [급+가속+하다]로 분석해서 ‘갑작스러운 가속을 하다’로 풀이할 수도 있지만, [급+가속하다]로 분석해서 ‘갑자기 가속하다’로 풀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ㄴ에 열거된 단어들의 후속성분은 동작성이 없는 명사들로서, 여기에서 ‘급’은 그 정도가 ‘매우 급한’ 또는 ‘매우 심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쓰였다.²²⁾

각 항의 ②에는 외래어와 결합한 단어들이 있는데, 접두 한자어가 외래어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생산력이 매우 높아서 화자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한다.

22) 사실 ‘급’의 용례 중에는 그 의미가 「1」에 속하는지 「2」에 속하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질 경우 그 정도가 ‘매우 급’하거나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의 경우 동작성을 가지는 어기와 결합하고 「2」의 경우 상태성을 가지는 어기와 결합한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 방침이지만, ‘물살’의 경우 동작성의 범주에 속하는지 상태성의 범주에 속하는지 애매한 일이다. ‘매우 심한 물살’이라는 ‘급물살’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급물살’을 「2」의 범주에 넣었지만, ‘급물살을 타다’의 사전적 정의가 ‘일이나 논의 따위가 빠르게 진행되다’임을 감안할 때 「1」이 가지는 동작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급’은 제한적으로 관형사의 쓰임도 보인다. ‘급 차선 변경’이라는 구(句)가 그 예이다. 여기서 ‘급’은 원래 ‘변경’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적 용법으로 쓰인 접두 한자어인데, 그 사이에 다른 단어가 개입함으로써 구 구성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급’은 접두 사라기보다는 관형사라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2003년 신어 자료집에 ‘급차선’이라는 항목이 있는 점이 의아하다.

- (13) 급차선(急車線) 「명」차선을 갑작스럽게 바꿈. 『급차선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범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커다란 개 한 마리. <국민일보. 2002. 10. 29.> |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매일경제. 1997. 4. 8.>

여기서는 ‘급’과 ‘차선’을 띄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단어로 처리한 듯하나, 이 뒤에는 필연적으로 ‘변경’이라는 단어가 쓰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 ‘급’이 수식하는 어기가 ‘차선’이라기 보다는 ‘변경’이어야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급차선’이 하나의 단어라면 ‘급차선을 하다’, ‘급차선은 안 된다’와 같은 문장도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단어구성으로 보고자 한다면 오히려 ‘차선변경’을 통틀어 하나의 복합명사로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급차선변경’처럼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아야 옳다. 띄어쓰기를 하는 편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면 이것은 단어의 범위를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차선’을 한 단어로 보기 보다는 ‘급 차선 변경’을 구로 보고 ‘급’과 ‘차선’ 사이에 휴지를 설정해 이때만은 ‘급’을 관형사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신조어 문법에서 ‘인기 급상승’과 함께 ‘급 인기 상승’이, ‘모델 급체인지’와 함께 ‘급 모델 체인지’가 허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식 범위도 범위지만, ‘급’이 거의 모든 단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접두사에 비해 관형사가 후속 어기의 분포에 있어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

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사전에는 ‘급-’이 고유어와 결합한 예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젊은 세대 화자들 사이에서는 ‘급-’이 고유어와 결합한 단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 (14) ㄱ. 급방긋 'MBC 놀러와' 그리고 'MBC 무한도전'에서 (...) 개그맨 겸 가수 박명수씨가 가끔 급하게 미소를 짓는 모양 또는 행위를 일컫는 말. 급방긋은 '갑작스러움'을 나타내는 접두사 '급(急)-'에 '입을 예쁘게 벌리며 소리 없이 부드럽게 한 번 웃는 모양.'을 일컫는 '방긋'을 붙인 파생어다. 문법적으로는 옳지 않은 단어지만, 매스컴이나 인터넷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네이버 오픈사전》

ㄴ. ① 강원랜드, 카지노세 적용 연기에 급방긋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경제] 2008-12-08 오전 10:54>

②李, '朴心' 훈풍에 '급방긋'

<인터넷 아시아경제 [정치] 2007-11-27 오전 11:00>

③ 2011년 신묘년, 직장인들 얼굴 '급방긋'...4년 만에 총 116일 휴일 "경사났네"

<인터넷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2-02 오후 3:45>

④ 해외 주식펀드 3주째 '플러스'...中펀드 '급방긋'

<인터넷 시사서울 [경제] 2010-07-25 오전 11:00>

⑤ '나 가수' 김연우 1위 발표에 급방긋 '표정관리 힘드네'

<인터넷 한국경제 [연예] 2011-05-17 오전 0:00>

- (15) ㄱ. 급만남 번개팅, 부킹을 뜻함.²³⁾ 《네이버 오픈사전》

ㄴ. ① 엄정화-혜박, 美 LA 급만남

<인터넷 헤럴드 생생뉴스 [연예] 2011-03-16 오전 7:56>

② 휴가철 피서지 급만남, 배우자 인연으로 발전 가능성은?

<인터넷 뉴스엔 [생활/문화] 2009-07-01 오후 6:20>

③ 일을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해도 잠깐 멀어지면 서먹해지기 십상인데 '친구'란 인연은 오랜 시간 공백기를 가져도 금세 다정한 친구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다. 그렇게 전화통화로 의기투합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약속 시간을 잡아 여지껏 어떻게 안보고 살았냐 싶게 급만남을 가졌다.

23) 사전에 계획이나 약속 없이 갑자기 만나는 행위(필자 주).

<인터넷 한국경제 [칼럼] 2007-08-03 10:43>

(16) ㄱ. [정의구현사전] 급

급 [kɔb] 접두사. 急

형용사 ‘급하다’의 어근. 일을 서두르거나 다그칠 때(급하게 닦달하다), 지체할 겨를이 없을 때(돈이 급하다), 사정이 몹시 딱한 경우(먹고사는 것도 급하다),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때(마음이 급하다), 성질이 참을성 없이 조급할 때(성미가 급하다), 매우 가파른 모양(경사가 급하다) 등에서 쓰인다. 접두사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갑작스러움, 급작스러움, ‘매우 급한’ ‘매우 심한’의 뜻을 더하기도 한다. (...생략...) 요즘에는 단어 앞에 ‘급’을 붙여 ‘단어’를 제조하는 조어법이 유행이다. 갑자기의 원래 말인 ‘급자기’는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를 연발할 때”라는 의미가 떠오른다. 갑작스런 만남 ‘급만남’이 있고, 갑자기 방긋거리면 ‘급방긋’이다. ‘빨리빨리’보다 더 효율적인 단어를 찾은 것이다. 단,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인터넷 한겨레21 [생활/문화] 2006-06-27 오전 8:06>

ㄴ. [복녜말] <갑작힘>

(...생략) 최근 남쪽에 ‘급인사·급유행·급칭찬’처럼 접두사 ‘급-’을 붙여 말을 만드는 걸 본다. 접두사 ‘급-’은 1음절인 낱말과 결합하거나 고유어와 결합하면 어색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갑작’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인터넷 한겨레 [칼럼] 2007-11-04 오후 6:59>

ㄷ. 급(急~) ‘급히’의 줄임말로 여러 단어와 조합하여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Ⅱ 출처 :대중문화사전, 김기란·최기호 저, 현실문화, 2009.>

(14)와 (15)는 ‘급’ 이 고유어 부사 ‘방긋’, 고유어 명사 ‘만남’ 과 결합하여 쓰이는 예이다. ‘급방긋’ 과 ‘급만남’ 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유래한 유행어지만, 이것이 점차 인기를 얻으면서 수년간 폭넓게 쓰여 왔다. (14)의 ㄱ과 (15)의 ㄱ에서 보듯이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서는 ‘오픈 사전’ 이라는 명목 하에 이것을 표제어로 선정하였고, (14)의 ㄴ과 (15)의 ㄴ에서 보듯이 이제는 이 말이 신문기사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16)에서는 아예 이런 현상 자체에 주목하여 이것을 기사화하거나 표제어로 선정했다. (16)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급’ 을 붙여 만든 신조어는 너무 많아서 딱히 결합할 수 없는

여기가 없을 정도이다. ‘급화해’, ‘급용서’, ‘급우울’ 부터 ‘급체인지’, ‘급 다이어트’ 까지 어기의 종류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처럼 신조어에서 높은 생산력을 보이는 ‘급’은 대부분 (11)의 「1」에 해당하는, 즉 ‘갑작스러운’의 의미를 더하는 용법으로 쓰인다. 하지만 국어사전 표제어에서 이 용법을 보이는 단어의 어기들이 모두 동작성을 내포하며 ‘하다’와의 결합도 자연스러웠던 것과는 달리, 신조어에서는 동작성을 결여한 명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급짜증’, ‘급호감’, ‘급관심’ 등 동작성보다는 상태성을 내포하는 어기와도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급’의 용법이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면을 묘사하는 자막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단어들은 ‘급짜증하다’, ‘급호감하다’, ‘급관심하다’ 처럼 이것들에 ‘하다’를 붙인 형태보다는 ‘급짜증나다’, ‘급호감을 가지다’, ‘급관심을 가지다’ 처럼 본래의 상태성을 유지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쓰이는데, ‘급’이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현상은 이에 말미암은 결과라고 보인다.

위의 단어들은 신어로서 공인을 받지 못한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 사용층이 젊은 세대를 넘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볼 때, 이러한 일련의 용례들은 화자들이 ‘급’을 한자어로 인식하고 있다가보다는 고유어 접두사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17) 가. 무협, "아르헨티나, 중남미 新수출유망시장 급 부상"
 <인터넷 아시아투데이 [경제] 2011-06-15 오전 9:25>
 나. 하동군 옥종딸기 수출물량 급 상승
 <인터넷 뉴시스 2011-05-12 오전 10:28>
 다. 김태희 인생역전, "너무 예뻐 표지모델 급 체인지!"
 <인터넷 아츠뉴스 2011-02-27 오후 9:36>

한편, ‘급’이 높은 생산성을 보이면서 구를 수식하기도하는 등 접두사의 용법을 넘어 관형사의 용법에 까지 그 기능이 미치고 있어

‘급 체인지’ 같은 신조어는 물론 ‘급부상’, ‘급상승’ 처럼 원래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띄어쓰기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 (18) ㄱ. ① 독일, 특히 북부지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 토마토와 생 오이 및 엽채류 샐러드를 먹지 말라고 미국 질병예방센터(CDC)가 3일 경고했다.

<인터넷 연합뉴스 [사회] 2011-06-04 17:28>

- ② 지글지글 오동통 돌판 위에 생 삼겹살 - “돌판 위에 지글지글 익혀 먹는 생 삼겹살이 일품인 집”이라는 조혜란 독자의 추천으로 찾아갔다.

<내일신문 [생활/문화] 2011-06-11 오후 3:04:11>

- ㄴ. ① 지난 3월 롯데마트 신선팀 바이어들은 고민에 빠졌다. 작년 가을부터 고등어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일본 원전(原電)사고로 일본산 수산물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때 '장보기 캠페인'이라는 사내 아이디어 게시판에 아이디어 하나가 올라왔다. 노르웨이산 '왕 고등어'를 판매하자는 것.

<인터넷 조선일보 [경제] 2011-05-09 오전 3:48>

- ② “우와~ 왕 귀뚜라미다”

<인터넷 헤럴드경제 [사회] 2009-08-03 오후 1:31>

- ㄷ. ① '강심장' 이성미, 친 자녀들에 질투 "너희는 좋겠다. 친 엄마가 과일 깎아줘서...

<인터넷 리뷰스타 [연예] 2011-01-19 오전 7:21>

- ② 1살짜리 아이에게 술먹이고 구타하는 친 할아버지, 도대체 왜...

<인터넷 한국경제 [연예] 2007-09-18 오후 11:59>

(18)은 한자어 접두사를 다루고 있는 많은 논문들과 국어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접두사의 지위를 인증 받은 ‘생(生)’, ‘왕(王)’, ‘친(親)’도 단어 안에서 띄어쓰기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것은 접두사로서 지위를 공인 받을수록 독자적 쓰임이 분명해져서 후속 어기와의 휴지를 허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것은 고유어 접두사가 그 구분에 있어서 관형사와 혼동되는 현상과 동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19) ㄱ. 어제 급 설렁탕이 먹고 싶었다.
 ㄴ.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급 사로잡혔다.
 ㄷ. 어제 급 짜증나서 죽을 뻔했어.

심한 경우 (19)의 ㄱ, ㄴ처럼 ‘갑자기’ , ‘급하게’ 등을 대신해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부사로까지 쓰이기도 하는데, 이 용법은 인터넷과 오락 프로그램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 한정된 용법이라고 보인다. 이 때 ‘급’은 부사가 그러하듯 등장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ㄱ과 ㄴ을 각각 ‘어제 설렁탕이 급 먹고 싶었다’ 와 ‘나는 그 사람에게 급 마음을 사로잡혔다’ 로 고쳐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조어에서 명사로 보는 단어들 중에서 ‘하다’ 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단어들은 물론, 그렇지 못한 일부 단어들도 실제로는 ㄷ에서처럼 부사적인 용법으로 자주 쓰이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 ㄱ. 윤종신 생일 초 53개 "갑자기 10살이나 급 늙어버렸잖아!"
 <시티신문 [연예] 2011-10-16 오후 10:05>
 ㄴ. 오늘 날씨가 갑자기 급 추워졌죠?(인터넷 본문 인용)²⁴⁾
 ㄷ. 갑자기 급궁급(인터넷 본문 인용)²⁵⁾

한편 ‘갑자기’의 뜻을 더하는 ‘급’이 부사 ‘갑자기’와 함께 쓰여 의미의 중첩이 일어나는 예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신조어에서 ‘급’은 (11)의 「1」에서 설명하고 있는 ‘갑작스러운’의 의미를 더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매우 심한’ , ‘매우 급한’의 뜻을 더하

24) 네이버 카페, 2011-09-20,

<http://cafe.naver.com/fek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57877&>.

25) 네이버 카페, 2010-11-20,

<http://cafe.naver.com/eomim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922&>.

는 용도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급’은 국어 문법 안에서 세 가지 층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²⁶⁾. 첫째는 ‘급조(急造)’, ‘급락(急落)’에서와 같은 어근으로서의 지위이고, 둘째는 ‘급상승(急上昇)’, ‘급진전(急進展)’에서와 같은 접두사로서의 지위이며, 셋째는 ‘급 차선 변경’에서와 같은 관형사로서의 지위이다.²⁷⁾ 두 번째의 용법을 보이는 단어들에 한해서 ‘급’을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 여부와 설정 기준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는 한자어의 목록을 정해 보았다. 더불어 근래에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한자어 접두사 ‘급(急)’의 용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논의에서 다루어진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자어 접두사 설정의 조건을 세우기에 앞서 ‘한자어 접두사’라는 성분을 과연 국어 문법에서 설정할 수 있는가하는 점을 살펴보았는데, 본고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을 근거삼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얻어진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은 비(非)자립성, 후속 어기의 자립성, 수식 범위의 제한성, 생산성,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 의미 유연성 및 다의성의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26) 일부 계층에서만 쓰이는 부사적 용법은 제외하였다.

27) 각각을 편의상 ①, ②, ③이라 칭할 때, ①로 갈수록 원래 써오던 단어라는 느낌을 주고 ③으로 갈수록 새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느낌을 준다. ②의 경우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갑작스러운’의 의미를 더하며 동작성 어기와 결합하는 경우와 ‘매우 급한’, ‘매우 심한’의 의미를 더하며 상태성 어기와 결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줄곧 써오던 단어라는 느낌을 주고, 이에 반하는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새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 여섯 가지 조건에 의해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는 접두 한자어의 목록은 ‘건(乾)-, 공(空)-, 급(急)-, 명(名)-, 본(本)-, 생(生)-, 시(媿)-, 양(洋)-, 왕(王)-, 외(外)-, 잡(雜)-, 청(靑)-, 초(超)-, 친(親)-’의 14항목으로 정리된다. 이들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고유어화의 정도가 상당해서 국어 화자들에게 한자어라는 인식조차 희미해진 경우에 속한다.

4장에서는 근래에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한자어 접두사 ‘급(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크게 ‘갑작스러운’의 의미를 더하는 용법과 ‘매우 심한’, ‘매우 급한’의 의미를 더하는 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조어에서는 ‘갑작스러운’의 의미를 더하는 용도로만 쓰이며 원칙적으로 이때에는 동작성을 가지는 어기와만 결합하지만, 신조어에서는 상태성을 가지는 어기와도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급’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근으로서의 지위, 접두사로서의 지위, 관형사로서의 지위가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3자어의 앞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에 한해 ‘급’을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사전 및 자료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

국립국어연구원 편,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2003-1-2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9.

[연구 논제]

김창섭(1992), 〈파생접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국립국어연구원.

김창섭(1998),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국립국어연구원.

김창섭(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국어학회.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변영수(2008),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난 자막의 표현 형식 연구〉,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서병국(1975), 〈현대 국어의 어구성(語構成)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안소진(2004),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왕염곤(2009), 〈현대 한국어의 한자 접두사에 관한 연구 : 신어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정민영(1994), 〈국어 한자어의 단어 형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윤권(1999), 〈한자어 형태 범주와 접사 설정 기준〉, 동국어문논집 8,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